

은혜와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교회

목장 나눔지 (2024년 5월 12일 - 5월 18일 주간)

1부: 자녀들과 함께 (Olive Blessing)

1. 다함께 즐겁게 찬송하기

* 기쁨으로 찬양

- 190 장 당신은 영광의 왕
- 215 장 모든 상황 속에서

* 찬송가

- 191 장 내가 매일 기쁘게
- 304 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2. 감사의 나눔과 축복 기도(Olive Blessing)

- * 모든 목장 식구들이 함께 모여 자녀들이 지난 주를 지내며 가장 감사했던 내용을 나누어 봅시다.
- *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둘러앉아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목자님의 기도로 마무리해 주세요.

2부: 따로 모여서

3. 말씀 나누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에 9:20-32)

- 이번 주에 읽으신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신 그분의 임재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특별히 설교자는 반전을 통해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 예를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어떠한 사례들이 있었는지 함께 정리하며 나누어 봅시다.
- 반전의 하나님은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구원의 상징으로 바꾸셨습니다. 비록 보이지 않아도 나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계신지요? 특별히,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애통을 찬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인생의 사건들을 돌아가며 얘기해 봅시다.
- 인간의 사사로운 동기나 판단과는 달리,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나 옳고 치우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통치를 온전히 인정하는 데서 진정한 평강을 얻게 됩니다. 이 평강을 얻기 위해 버려야 할 삶의 자세가 있으신지요? 내 삶 가운데 주님의 공의 대신 내 판단, 감정 혹은 세상 가치 등 다른 것에 의지한 부분이 있는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할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4. 연합교회/목장 광고 및 생일 축하

* 지난 주일 주보를 보면서 교회의 중요 행사들을 함께 나누어 주시고 함께 의논할 사항을 나누어 봅시다.

5. 삶의 나눔

* 목원들의 삶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지난 주에 기도 응답 받았던 일이 있으면 서로 나누어 봅시다.

* 지난 주 말씀을 읽으면서 내게 주셨던 은혜들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

* 주변에 계신 나의 VIP 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 올해 여름에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6. 합심 기도

* 오늘 목장에서 서로 나눔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목장 안에서 비밀을 서로 지키며 기도합시다)

* 우리 목장이 후원하는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설교요약: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에 9:20-32)

* 확연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 보다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도 그분을 섬기는 삶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에스더서를 구성하는 167 절 중에 하나님의 이름은 한번도 등장하지 않으며 오히려 페르시아 왕의 이름만 190 번 정도 언급됩니다.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의 모습만 눈에 띄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물밑에서 일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 하고 계십니다. ‘부림절’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져 봅시다.

1. 부림절에 발견되는 하나님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22 절).

* 아하수어로 왕이 내린 두개의 조서에서 발견되는 엄청난 반전을 묵상해 보십시오(에 3:7-12; 에 8:7-14).

*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심오한 ‘역전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창 3:15; 요 12:31-33; 롬 5:6-8).

2. 부림절에 발견되는 하나님은 가벼운 감정에 따라 일하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에 9:5-10; 삼상 15:7-9).

* 타락한 인간은 감정의 충동에 따라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행동에는 치우침이 없습니다.

* 역사의 단면을 통해 발견되는 인간의 치우침에 시험에 들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음으로 바라 보아야 합니다.

적용을 위한 질문:

* ‘예루살렘에 살롬이 없다’는 말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때론 진정한 평강이 없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못해 세상의 힘과 권력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말씀에 의지하여 진정한 평강을 얻기 위하여 내가 버려야 할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요? 물밑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바라보는 삶을 멈추지 마십시오.